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촉각체험 『공예』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경기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5가지 테마로 나눈 한국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오감 (the five senses)은

미각(the sense of taste),

시각(the sense of sight),

후각(the sense of smell),

청각(the sense of hearing),

촉각(the sense of touch)을 말하며

각 회차 별로 한 가지의 테마를 체험합니다.

문화는 국경과 인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며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문화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를 만나다.

근로자로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처음 발을 디딤니다.

내 나라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김새도 나와 닮은 나라.

걱정도 많았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이 나라에 왔습니다.

이 길을 선택했던 목적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가족 생각에 고향 생각에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더 낯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듣는 가족의 목소리.

힘내라는 한 마디에 나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했던 사람들이 날 보며 웃어주듯이

이젠 나도 어렵고 다르다고만 느꼈던 대한민국에 한 발 다가서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나러 갑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촉각체험 『공예』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사업목적

- 경기도의 미래를 향해 함께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느끼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해소하고,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 경기도내 전통문화를 테마로 나누어 체험함으로써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이해 고취와 다문화 커뮤니티 사회 구현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의 계기

◆ 행사일정

- 1차 : 2008년 10월 23일(목) - 시각체험 (수원 - 성곽)
 - ▶ 화성홍보관 견학, 수원 화성 견학, 무형문화재 전수관 견학, 수원역사박물관 견학 등
- 2차 : 2008년 10월 26일(일) - 촉각체험 (이천 - 공예)
 - ▶ 해강도자미술관 견학, 도자기 강좌, 도자기 만들기, 도예촌 또는 세계도자센터 견학 등
- 3차 : 2008년 11월 2일(예정) - 후각체험 (김포 - 茶)
 - ▶ 다도 박물관 견학 및 다도예절 교육 등
- 4차 : 2008년 11월 6일(목) - 미각 체험 (여주 - 음식)
 - ▶ 오감도토리마을 방문 및 체험(도토리묵 만들기 등)
- 5차 : 2008년 11월 9일(일) - 청각체험 (안성 - 음악)
 - ▶ 소리 박물관 견학, 남사당전수관 공연 관람 및 체험 등

◆ 사업개요

- 일 자 : 2008년 10월 26일(일)
- 장 소 : 경기도 이천시, 세계도자센터 일대
- 주 제 : 촉각체험 - 공예
- 참가대상 : 시흥 공단선교센터
- 참가인원 : 42명 (진행요원 포함)
- 주 최 : 경기도
- 주 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30~12:20	이천 도예촌 견학	
12:20~12:35	이동	
12:35~13:35	중식	
13:35~14:40	이천쌀문화축제 관람 및 체험	
14:40~15:20	세계도자센터 견학	
15:20~17:00	흙놀이 공원 - 핸드페인팅 체험	
17:00~	귀가	

목 차

◆ 한국문화

문화일반	3
한국의 문화상징	4

◆ 촉각체험 - 공예

이천의 유래	9
이천도예촌	10
이천쌀문화축제	11
세계도자센터	13
흙놀이공원	17

한국문화

촉각체험 『공예』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문화 일반

♣ 언어 - 한국어

표준어는 '현재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중류층의 언어'이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사투리를 쓰지만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 문자 - 한글

♣ 종교

한국은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인 중 53.6%가 종교를 갖고 있다(1999년 기준). 불교 26.3%, 기독교 18.6%, 가톨릭 7.0%이며, 그 밖에 천도교, 원불교 등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종교와 다양한 소수 종교가 있다.

♣ 스포츠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다. 올림픽에서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준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프로축구인 K-리그를 비롯하여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다양한 프로스포츠 리그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 몇 가지 종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드러내고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양궁, 레슬링, 유도, 태권도, 탁구 종목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골프 분야에서도 많은 스타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 대중문화

한국은 뛰어난 예술가를 많이 배출한 문화국가이다. 고전예술과 대중예술이 두루 한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손꼽히는 것은 영화산업인데, 2004년에는 칸느,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감독상과 심사위원 대상을 휩쓸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와 가요, 영화배우와 가수 등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문화 상징

♣ 한복



한복은 2000년 전부터 입어 온 한국인의 옷이다. 한복은 넉넉하고 부드러운 옷으로 남자옷(바지저고리)과 여자옷(치마저고리)이 조금 다르다.

추울 때는 외출복으로 남녀 모두 두루마기를 덧입는다. 발에는 양말과 비슷한 버선을 신고 가축신이나 고무신을 신는다.

오늘날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로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나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다.

♣ 탈춤



탈춤은 탈(가면)을 쓰고 등장한 인물들이 펼치는 민중 연극이다. 가난한 백성, 하인, 천민이 자신들을 억누르는 지배계급을 놀리는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민중은 저항과 풍자가 담긴 탈춤을 통해 사회적 불만을 풀어냈다.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 따라 이야기와 춤이 다르므로 등장하는 탈도 다르다. 탈춤은 일본 강제 점령기에 금지되어 사라졌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활발해졌다.

지금은 직접 탈을 만들고 탈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 고려인삼



인삼 뿌리는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인삼은 피로를 풀어주고, 혈압과 혈당을 낮추주고,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인삼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산출되는데, 한국 인삼(고려인삼)이 가장 좋은 인삼으로 꼽히고 있다. 고려인삼의 신비로운 약효는 17세기 초부터 널리 알려졌다.

인삼은 처리 및 보존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밭에서 수확한 인삼은 '수삼'이라 하고, 수삼을 건조시킨 것을 '백삼'이라 한다. 또 수삼을 찌서 말린 것을 '홍삼'이라 한다.

인삼을 가공한 상품으로는 인삼차, 인삼주, 분말, 절편, 초콜릿, 사탕 등이 있다.

♣ 태권도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무술 중의 하나이다. 한국 전통무술에는 태권도 외에도 손을 사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수벽치기, 섬세하고 부드럽게 몸을 놀리면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태권, 검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전통무술은 태권도이다.

오늘날에는 올림픽의 경기종목에도 포함되어 있다. 태권도는 기술보다 정신적 수련이 더 강조되며, 신체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수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어린이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태권도를 많이 배운다. 전국 곳곳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태권도 도장이 있다.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한국의 문화상징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에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많이 있다. 이 중 서울에 있

는 창덕궁과 종묘, 수원의 화성,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 한글과 조선시대 왕조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 불국사와 석굴암



오랜 불교국가였던 한국에는 사찰, 경전, 불상 등 불교에 관련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서기 751년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불국사는 사찰건물만이 아니라 팔려 있는 탑과 조각품 모두가 신라시대의 불교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것들이다.

인공적으로 만든 석굴 안에 돌로 만든 대형 부처님을 모셔놓은 석굴암은,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건축기술로 뛰어난 신라시대의 불교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종묘제례는 왕실에서 전왕의 업적을 칭송하며 지내는 제사와 이때 연주되었던 음악과 노래 등 왕조 제사 문화 일체를 뜻한다. 한국의 왕실에서 연주되는 각종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이 총동원되며 장중하고 우아하다. 서울 종로 4가에 있는 종묘에서는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제례를 재현한다.

♣ 한글

한글은 15세기 중반, 조선의 4번째 왕인 세종대왕이 만든 것으로 아주 과학적인 글자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촉각체험-공예

촉각체험 『공예』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여 백

利川の 유래 (The Origin Icheon)

♣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풍요롭고 축복받은 고장 이천!

이천이라는 지명은 936년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나섰다가 이천의 젓줄 북하천에서 큰 홍수를 만나 곤란에 처했을 때 고려의 대외교가 서희 선생의 선대조 서독의 도움으로 내를 건너 천하를 도모하였고, 후일 왕건이 이를 고맙게 여겨 주역의 “이섭대천” 즉 “내를 건너 이로웠다.”의 고사를 인용, 앞글자 利와 뒷글자 川을 따 이천으로 명명한데서 유래한다.

(출처 : 신증동국여지승람)

백제의 땅으로 시작하여 고구려와 신라의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예부터 도자기와 임금님께 진상했던 기름진 쌀의 산지로 이름 높은 이천은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해강도자미술관, 설봉공원, 이천온천, 도예촌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문화도시로 쌀, 복숭아, 황기, 도드람 포크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특산물을 생산하는 풍요로운 도시 21세기 선진 이천으로 도약하고 있다.

♣ Ichoin is an abundant and blessed region that is located in the middle of Korea.

In 936, King Wang Geon of Goryeo headed out to conquer the Hubadkje kingdom, there was a flood at Bokhacheon. Seo Mok helped him cross the river. The king quoted the historical fact "iseopdaecheon" meaning it was advantageous to cross the river from the Book of Changes. The first and last syllables were taken to name Icheon.

(Source : Sinjeung Donggukyeojiseungnam)

Icheon had been a part of Baekje and then was a strategic point for the animies of Goguryeo and Silla. Icheon had a high reputation as the production site of ceramics and rice that was served to the king. Nowadays

companies like Jinro, OB Beer and Hynix Semiconductors are in Icheon. So Icheon has a blend of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There are also many cultural resources including the Haegang Ceramics Art Gallery, Seolbong Park, Icheon Hot Springs and ceramics village. Icheon is an abundant city famous for producing many specially goods such as rice, peaches,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and Dodram pork.

이천도예촌

예술인들이 모여 사는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이면서도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우리 한국 전통도자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도자기의 메카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사기막골'로 불려온 이천시 사음동, 신둔면 수광리 일대에 300여 도예업체가 집산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40여 개의 전통장작가마(동요)에서 생산된 전통기법 그대로의 도자기 작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도예촌 역시 도자박물관 관람, 도예교실 체험, 도자기 구입이 연중 가능하여 관광객들의 전통문화체험 명소로 인기가 높다.



이천쌀문화축제

㉔ 기간 : 2008. 10. 23(목)~10. 26(일)

㉔ 장소 : 이천시 설봉공원

㉔ 주제 : 풍요의 땅 생명의 씨앗

㉔ 주최 : 이천시

㉔ 주관 : 이천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축제일정표 (10월 26일)

시간	장소	내용
10:00~11:00	풍년마당 기원마당 쌀밥카페	배꼽 길놀이 기원놀이체험 이천쌀밥 명인전
11:00~12:00	햅쌀거리 동화마당 놀이마당	배꼽 길놀이 태견시범과 풍물 골목대동놀이
12:00~13:00	기원마당 동화마당 햅쌀거리 풍년마당 쌀밥카페 쌀밥카페	마당극 뽕과전 가족인형극 우마차 운행 거북이탈 만들기 이천쌀밥 명인전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13:00~14:00	햅쌀거리 햅쌀거리 쌀밥카페 쌀밥카페 동화마당 기원마당 놀이마당	우마차 운행 용줄다리기 이천쌀밥 명인전 외국인 송편만들기 햅쌀노래자랑 기원놀이체험 풍선퍼포먼스



14:00~15:00	햅쌀거리 풍년마당 동화마당 쌀밥카페 쌀밥카페 놀이마당 기원마당	우마차 운행 거북놀이 체험 가족인형극 쌀떡 찰떡 콩떡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풍년대박놀이 마당극 놀보밥
15:00~16:00	햅쌀거리 햅쌀거리 풍년마당 동화마당 쌀밥카페 기원마당 놀이마당 대공연장	우마차 운행 용싸움 대동놀이 거북놀이공연 10월의 쌀음악회 이천쌀밥 명인전 결승 기원놀이체험 풍년잔치 강강술래 씨름왕 선발대회 시상
16:00~17:00	햅쌀거리 동화마당 기원마당 쌀밥카페	우마차 운행 가족인형극 마당극 놀보밥 돼지고기홍보
17:00~18:00	풍년마당 기원마당	배꼽연희마당 기원놀이체험
18:00이후	동화마당	월드비트 비나리



세계도자센터



이천세계도자센터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설봉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의 대형 전시장과 함께 도자 예술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초대전, 공모전, 대관전 등을 통해 세계 도예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도예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신진작가 발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해 도자연구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또한 어린이 도자 체험장인 '토야 흙놀이 공원', 전통장작가마, 다례시험장 등의 부대시설을 통해 우리 생활과 친근한 흙과 도자기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온 가족의 쉼터이자 배움터로 발돋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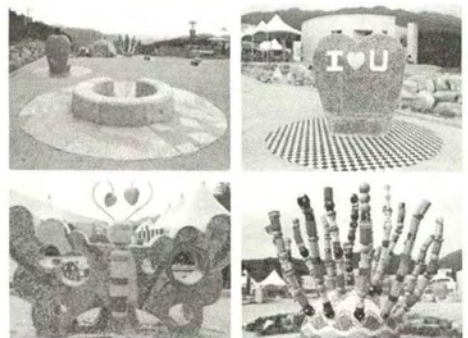
윈도우 갤러리전



이천세계도자센터 토야관에 위치한 윈도우 갤러리 전은 일반인들에게 이천 작가의 작품을 쉽게 소개하기 위한 전시이다. 대나무 숲속 사랑방, 조각보가 걸린 아늑한 안방 등의 테마로 구성된 8개의 방에 다양한 요장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본 전시는 6개월을 주기로 매 회 8개 요장의 작품이 교체 전시된다.

토야랜드

토야랜드는 'I♥U' 벤치, 나비, 도자과일 선인장 등 대형 도자조형물들이 설치된 공원이다. 알록달록한 도자 조형물 앞에서 사진 촬영도 하고, 담소를 나누며 쉬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쉼터이다.



전통장작가마



• 이천통가마

가마명	이천 통가마(통굴식 가마)
제작일	2001. 7 완공
제작자	항산 임항택
소유자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69-1
규모	길이 12.90m, 폭 2m, 높이 1.5m

이천 통가마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오름가마와 함께 제작되었다. 통가마란 용기를 굽기 위한 전용가마로서 오름가마와는 달리 길이가 긴 내부공간을 칸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커다란 가마실로 이루어져 있다.

이천 세계도자센터의 통가마는 16.5° 경사로 설계되었으며, 내화벽돌과 사도로 제작되어 관리가 편리하고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락하는 반연속 가마이다. 통가마는 가마 옆의 작은 구멍을 통해 기물을 넣고, 밑부분의 봉통과 천정화구에서 장작을 넣어 오랜 시간에 걸쳐 불넣기를 한다. 용기는 약 950℃~1,200℃에서 소성되며 1주일간 진행됩니다.

• 이천 오름가마

가마명	이천 오름가마(칸식가마)
제작일	2001. 7 완공
제작자	항산 임항택
소유자	경기도 도자진흥재단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69-1
규모	7봉, 길이 12.90m, 폭 2m, 높이 1.5m

이천 오름가마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설계제작 되었으며, 보통 칸가마라고 불리는데 가마 내부 구조가 칸칸히 나뉘져 있기 때문이다.

보통 오름가마의 경사는 20°~ 30°이나 본 가마의 경사도는 통가마와 같은 16.5°로 통가마와 마찬가지로 내화벽돌을 이용 제작되었고, 경사도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천천히 온도를 올리고 자연스럽게 냉각되는 반연속 가마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분청, 청자, 백자, 진사등을 환원 소성방법으로 소나무를 이용하여 구워낸다.

오름가마의 기물넣기는 옆부분의 칸칸의 문을 통해 재임하며, 불넣기는 밑부분 봉통에서 오랜 시간 서서히 불넣기로 전체 칸의 온도를 상승시킨 후, 칸측면에 설치한 창살을 통하여 가는나무를 투입 가마온도를 조정하며 고온소성을 하게 된다.

오름가마의 굽는 온도는 1,250℃~1,300℃정도에서 구워지며 굽는 작업은 3일간 밤낮으로 계속되며, 모든 불이 끝나면 완전 밀폐하여 소성시간 만큼 식힌 후 가마내기를 하게 된다.

곰방대가마



곰방대는 한국 고유의 전통 물레성형도구이며,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매병의 긴목을 성형할 때 없어서는 안되는 도구이다. 곰방대가마는 한국 고유의 전통 가마인 오름 가마에 곰방대 형태를 합성시켜 제작한 조형물의 고유한 이름이다.

다례시연장



도자기와 함께 하는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다례시연과 시음 등 관람객에게 차와 꽃꽂이·분재 등이 어우러진 차 문화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어진 다례시연장이다. 건물 외관에서부터 내부까지 전통 차의 향내와 도자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야외옹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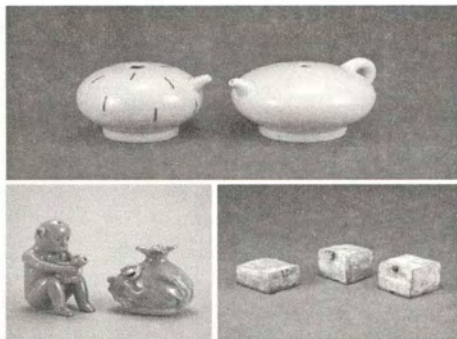


대표적인 전통 생활용기로서 한국 특유의 서민적 정서를 드러내는 옹기의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의 생활에서 옹기는 가장 친근한 조형물의 하나로, 한국적 흙의 미학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장독대가 지닌 한국적 풍경을 예술적으로 수용한 야외 옹기전은 우리 장독대문화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현재 전시 - 우리도자의 전통과 현대

▷ 전시기간 : 2008. 8.1 ~ 12. 31

▷ 전시장소 : 이천세계도자센터 제1전시실



<우리도자의 전통과 현대>는 우리 전통도자의 우수성과 현대성을 접목해서 우리만의 '형(形)과 색(色)'을 찾는 작가를 조명하는 기획전이다.

재단이 2회에 걸쳐 진행한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공모전의 수상 작가들의 수상작품과 '특선' 이상 수상작가분들이 출품한 신작들로 구성되며, 신작들은 우리나라의 '선비

문화'가 집약된 사랑(舍廊)과 서재(書齋) 용품을 재해석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유광열', '이영호', '김상만' 등의 작가의 연적시리즈와 '김대훈', '이창화', '허상욱' 등의 작가의 합시리즈 등이 전시되며, 우리 도자만의 아름다움을 찾아 독특한 색과 형태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해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흙놀이 공원



물레체험!

직접 물레를 돌려보며,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알록달록 예쁘게 핸드페인팅 체험!

직접 도자기를 알록달록한 색으로 도자기를 꾸며서 맛있는 음식을 직접 담가 먹어보자!



내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스스로 만들어보는 타래체험!

썩썩 싹싹 멋진 작품을 만들고 또 화장토를 칠해서 멋진 나만의 작품을 완성해보기!

“도자기 체험하기” 프로그램

① 흙판을 이용하여 생활자기 만들고 구워서 받기

대상	소요시간	작품수	수업내용
초등학생 ~	40분	1인 1작품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고 3색 화장토로 색을 입혀 문양도 그려 구워서 받아보기

② 물레를 이용하여 생활자기 만들고 구워서 받기

대상	소요시간	작품수	수업내용
4세 ~	30분	1인 1작품	선생님과 1:1로 수업하여 컵, 꽃병, 그릇, 화분 등 생활도자기를 만들고 하얀 화장토를 입혀 문양을 그려 넣은 다음 구워서 받아보기

③ 물레를 이용하여 나만의 풍경 만들고 구워서 받기

대상	소요시간	작품수	수업내용
4세 ~	30분	1인 1작품	맑은 소리로 집안의 악귀를 물리치는 풍경을 선생님과 1:1로 만들어보고 하얀 화장토를 입혀 문양을 그려 넣은 다음 구워서 받아보기

④ 가족과 함께 토야를 응용한 생활자기 만들고 구워서 받기

대상	소요시간	작품수	수업내용
가족 (4인까지)	60분	4인 1작품	토야 캐릭터를 이용하여 엄마 아빠와 함께 생활도자기를 만들어보고 3색 화장토로 색을 입혀 문양을 그려 구워서 받아보기

⑤ 초벌도자기에 나만의 핸드페인팅하고 구워서 받기

대상	소요시간	작품수	수업내용
6세 ~	40분	1인 1작품	한 번 구워진 초벌도자기에 알록달록 화려한 색을 이용해 자유자재 나만의 문양을 그려 넣어 구워서 받아보기

⑥ 타래를 이용하여 만들어보고 바로 가져가기

대상	소요시간	작품수	수업내용
6세 ~	50분	1인 1작품	타래를 이용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를 자유자재로 제작하여 흰색 화장토로 색을 입혀주고 문양을 그려 넣은 다음 집으로 바로 가져가기

MEMO

발행일	2008년 10월
발행인	남선우
편집인	김성문 · 신미영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층
전 화	(031) 239-1020
E-mail	kccf-kg21@hanmail.net
Homepage	http://kccfgg.or.kr

※ 본 책자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제작되었음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